1. 아래 단어의 발음이 바른 것은?

- ① 닭을 [달글]
- ② 헛웃음[헛우슴]
- ③ 떨지[떨:지]
- ④ 밟고[발:꼬]

2. 속담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독배기 보다 장맛이 좋다.
-> 내용이 형식보다 못하다.
- ②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
- ③ 배주고 속 빌어먹는다.
->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남에게 빼앗기고 그로부터 겨우 적은 이익 얻어가진다.
- ④ 번개 잦으면 천둥 친다.
-> 자주 말하는 일은 마침내는 그대로 되고야 만다.

3. 다음 고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도둑을 맞히다.
-> 도둑을 맞았다.
- ② 철수는 골목에서 나오는 자전거에 부딪쳐 팔이 부러졌다.
-> 자전거에 부딪혀
- ③ 어느새 재산을 늘려 큰집으로 이사를 갔다.
-> 재산을 늘려
- ④ 너는 왜 너의 재주를 썩느냐
-> 재주를 썩이나

4. 다음 한자 표기가 바른 것은?

- ① 3개월 간의 실습 과정을 마쳤다
-> 課程
- ② 병원에 연고가 없는 환자가 한 명 있다.
-> 然故
- ③ 추위로 위장의 소화 기능이 약화되었다.
-> 技能
- ④ 그는 썩썩한 기상을 지냈다.
-> 氣象

5. 다음 문장의 구성성분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장은?

- ① 여실히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 ②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 ③ 다음은 교장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6.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사과는 껍질채 먹어라
- ②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해라
- ③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설레이는 마음에 어제 하루 종일 들떴다

7. 문장의 종류를 설명한 것으로 바른 것은?

- ①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② 저 사람은 아들이 유명한 화가이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③ 우리는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판단했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④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 가버렸구나!
-> 부사절을 안은 문장

8.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우리 인간은 법을 지키기도 하고 구속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② 우리는 예술 종사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③ 시를 생활화 한다는 말은 곧 시를 짓고 읽으며, 시를 맛보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 ④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통일을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문법에 맞는 것은?

- ① 형이 동생만 못하다.
- ② 그는 행동이 못되다.
- ③ 시험시간이 아직 안되었다.
- ④ 시험에 실패했다니 참안되었다.

10. 밑줄 친 부분과 쓰임새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생각이 이에 미치매 한시각도 이곳에 지체할 수 없이 마음이 설렌다.

- ① 도박에 미쳐 전 재산을 날렸다.
- ② 그는 심리적 충격으로 미쳐 버렸다.
- ③ 화가 가족에게 미쳐 모두 힘들어졌다.
- ④ 화제가 그의 과실에 미치자 그는 살그머니 사라졌다.

11. 다음의 소통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다.
- ② 이 글의 산은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 ③ 화자가 산에서 느끼는 감정을 점층화하여 희열감을 드러낸다.
- ④ 세련된 비유와 묘사로 대상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했다.

12. ㄱ을 ㄴ으로 풀었을 때 달라지는 효과가 아닌 것은?

ㄱ.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ㄴ.

나는 어느 날 밤 유리창 밖에 죽은 아들이 어른거리
 는 느낌을 받았다.
 입김으로 유리창이 흐려지면서 나타난 모습이
 죽은 아이가 새로 변해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 ① 운율의 효과가 사라졌다.
- ② 대상의 모습이 함축성 있게 표현되었다.
- ③ 시어의 의미가 명료해졌다.
- ④ 시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3. 다음은 한 대중가요 가사다. 이 가사에 대한 해석으로 맞는 것은?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
 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
 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
 게 노래하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
 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랴도 그
 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워~ 이런 나의 마음을

- ① 형상성 - 관념적 시어로 임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보여줌
- ② 형상성 -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격정적 어조로 반복하여 표현함
- ③ 음악성 - 각운으로 리듬도 살리며 임에 대한 사랑을 점층적으로 표현
- ④ 함축성 - 단순하고 직설적 어조로 화자심정을 노출하여 독자가 쉽게 화자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게 함

14. 한자성어의 뜻을 잘못 연결한 것은?

- ① 각주구검 - 판단력이 둔하여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
- ② 고식지계 - 당장의 편안함만 꾀하는 일시적 방편
- ③ 다기망양 - 거의 죽게 되어 목숨이 곧 넘어갈 지경
- ④ 빙탄지간 -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

15. ‘ㄱ’부분의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는 것을 ‘ㄴ’에서 고르면?

ㄱ. 중세국어에서는 ‘온, 즘, 가람’같은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고유어들이 발견된다.
 ㄴ. 나랏 a.말싸미 등귀에 b.달아 문자와로 서르
 c.사맛디 아니할세
 이런 d.전차로 어린 백성이 e.니르고져 흠베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퍼디 문할 노미하니라

- ① a,b ② b,c ③ c,d ④ d,e

16. 다음 글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은?

최세진이 <훈몽자회> 에서 한글 자모의 이름 (사실은 발음방법)을 지을 때에 초성과 중성에 두루 쓰이는 글자의 이름은 "ㅣ,ㅡ"를 가운데 두고 그 앞과 뒤에 그 글자의 소리를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ㄱ"은 "기옥","ㄴ"은 "디은","ㅅ"은 "시옷"이 되어야 하겠는데 ,"옥","은","옷"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하여 궁리 끝에 그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자로써 변통을 했다. "옥"은 "역"으로 변통하고 ,"은"과 "옷"은 도리가 없어 "未(근 말)","衣(옷 의)"를 써서 池未(디근), 時衣(시옷)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 글자는 음으로 읽지 말고 뜻(새김)으로 읽으라는 뜻이다.

- ① 한글 자모의 원래 모양에 대하여
- ② 한글 자모의 생성 원리에 대하여
- ③ 당시 한글 자모의 실제음과 이상음에 대하여
- ④ 한글 자모의 이름이 불규칙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17.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보기와 이질적인 것은?

대조 : 어떤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그 특징을 선명하게 부각함

- ① 음악은 기본 재료인 "소리"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고정시켜주는 "틀"에 의해 성립된다. 서양음악은 "틀"을 더 중시하는 음악이라면, 우리 전통 음악은 "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겠다.
- ② 엮는 것이나 포옹하는 것이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합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차이는 포옹은 수평적인 평등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포옹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엮는 것은 반드시 엮는 자와 엮히는 자가 위 아래로 나누어집니다.
- ③ 인생에서 적당한 소음은 필요하다. 소음과 침묵은 정반대의 현상이지만 소음이 없다면 침묵도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산 속에서 울려 나오는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진정한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고요 속의 종소리는 침묵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침묵을 불러들인다.
- ④ 고전적인 방식의 자화상과 현대 화가의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실제모습의 반영이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고

전주의 화가들은 세계와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자화상을 그렸다. 화가들은 예술가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지니고 열정과 꿈, 이상 등을 자신의 모습에 투사하였다. 그러나 현대 화가들은 상징과 풍자, 패러디 등의 방식을 통해 불안과 소외, 자아 부정을 드러내고 정체성 혼란을 겪은 흔적을 역력하게 드러낸다.

18. 벼슬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한 문장은?

- ① 우습구나 큰 남의 배를 사공 없이 빌려 타고 끝없는 환해풍파 떠날 줄을 모르니
- ② 검은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하네~차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
- ③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청강에 쪼히 찢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 ④ 세차고 크나큰 말게 이내 시름 동재게 실어 주천 바다에 띄우고자.~ 진실로 그렇게 할양이면 자연 삭아지리라

19. 일본어나 중국어 또는 외래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 ① 그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었다.
- ② 나에게 있어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이다.
- ③ 그야말로 장편서사시에 값하는 것이다.
- ④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20. 문장쓰기의 원리에 어긋난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내가 가려는 곳은 제주도인데, 서귀포이다.
- ② 이 토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은 세 가지 문제이다.
- ③ 어머니는 소풍 때 떡과 과자와 달걀과 사과를 싸 주셨다.
- ④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 민속촌에 견학 갈 생각을 했다.